

장인의 거리

요나고 마치 조사

마쓰에 성하마을에서는, 바깥 해자를 둘러싸듯이 상가가 배치되어 있어, 무가의 생활을 받치고 있었습니다. 이곳 히가시 소토보리(현재 요나고 강)에 면하는 상가의 거리 이름은 요나고 마치라고 부릅니다. 이는 축성시, 이웃나라인 호키국(현재의 돗토리현 서부) 요나고 방면에서 장인이 이주해 온 것에서 유래한다고 전해집니다.

발굴조사에서는 곱자, 컴퍼스, 숫돌, 금속을 녹이는 도가니 등, 장인의 도구 이외에, 제품으로 보이는 칼의 덧쇠나 담뱃대, 작은 칼이 출토되어, 이러한 이야기를 뒷받침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또한 발굴 조사로는, 에도시대의 도로 폭을 특정할 수 없지만, 흥미로운 제 2 차 세계대전 전의 사진이 남아있습니다.(오른쪽 사진) 전쟁 전에는 사진처럼, 버스가 지나갈 때는, 사람들이 처마 밑으로 피해야 할 정도로 좁은 길이었습니다. 에도시대의 도로폭도 이 정도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대와 함께 도로는 넓어졌고, 현재는 29m 의 도로가 되었습니다.